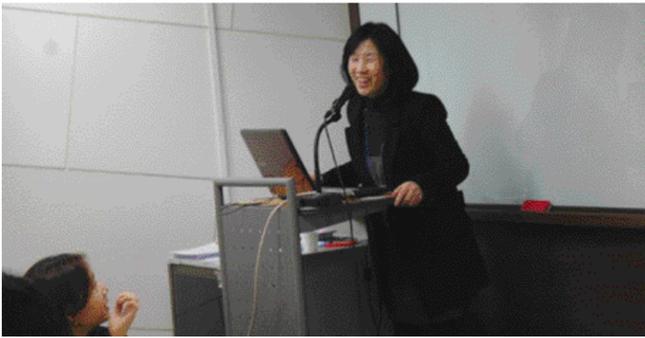


# 다문화 가족역량 및 이웃연대 강화

김혜련 결혼이민자여성평등찾기 대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0년대부터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수가 가시적으로 증가하여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4월 국내거주 외국인 수는 12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2010년대 들어서는 결혼이민여성 비중이 증가하면서 한국의 인구대비 2%에 가까운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한국 사회에서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고, 다문화가족의 실태파악 및 인권, 사회적 지원정책을 모색하는 등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관심에 반해 국내 이주 다문화가정 대부분은 저소득층이며, 사회적 교육적 기반 취약으로 인해 생활 부적응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 가구당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때 여성결혼이민자 전체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을 보였으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50% 이하의 수준에 있는 경우도 44.2%를 차지하여 열악한 가정환경을 맞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05, p.162).



중년 프로그램에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그 경험들을 다양한 단체들이 경험하여 가족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 관, 학의 그물망 다문화지원네트워크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 일촌맺기사업, 예산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다문화가정의 결연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결혼이주여성들은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육아와 집안경제를 함께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 또한 문화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자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저해하고, 나아가 자녀의 학교부적응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30%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혼혈아동의 경우 64.4%가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학교부적응의 경험이 다른 일반아동과 다른 점은 선택하지 않은 자신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벌어진다는 것이며, 또한 자녀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해결할 수 없는 지원망을 알지 못해 방치되거나, 검사 및 치료비용이 상당하여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본 단체는 이러한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서울특별시 지원을 받아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애착관계향상을 통한 자녀발달 지원프로그램 "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이하 선물, 약칭"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검사비용이 비싸 하지 못했던 정확한 진단부터 실시하여 상황을 정확히 알고 그 뒤 애착을 형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에 치지 않고 엄마나라를 바로 알게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여 학교적응까지 돕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어머니가 서로에 대한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감정표현이 명확해졌으며, 보다 진정하고 다채로운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청으로 다문화가족 좋은

이웃되기 일촌맺기 사업을 함께 실시하고 있는데, 생활에 필요한 기초정보, 상담 등을 제공하여 가족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 관, 학의 그물망 다문화지원네트워크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다문화가족과 "좋은이웃되기"사업은 상당히 좋은 취지와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다문화가족의 생활정착을 돕는 데 매우 효과적인 모델이다. 그러나 비예산으로 추정하고 있어 체계적인 자원봉사자교육과 후속결연지원 등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촌맺기사업은 단기간에 그 효과성을 논할 수 없는 사업인 만큼 예산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다문화가정의 결연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의 열린 상담소를 개소하여, 다문화가족의 실생활에 대한 어려움에서부터 법률상담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이 중 월 상담의 20건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선물"에서 마주칠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가족폭력, 부부간의 대화문제, 자녀교육, 경제문제 등 현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이며, 이러한 현실들은 다문화가족프로그램의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욕구조사를 기반으로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문화사회는 국적, 언어, 문화, 가치관이 다양한 이들이 모여 함께 이루어가는 사회를 의미한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그러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지속적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들의 자발적 참여를 동반한 네트워크 구축이며,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행동이 건강한 다문화사회의 전환을 이끌 것이다.

### 다문화가족의 환경에 기반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심층적인 욕구조사와 연구필요

각 구청별 23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생애주기별 다문화가족지원뿐 아니라, 민관협력력을 통한 이러한 창의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 이전에 우선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 나라, 지역, 경제 환경에 따라 가족이 형성되어 성장할 때 필요한 욕구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러한 욕구들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10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미등록 주한 외국인들을 합하면 다문화가족은 대개 200만명을 넘었다고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주민에 대한 통계는 그 출신국이나 이주민의 처지에 따라 대상과 범위가 달라지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욕구조사와 연구의 현황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지역과 자치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효과성이 검

### 인터뷰 >>> 대한변호사협회 임준호 사업이사

## 다문화가정을 위한 법률지원단 필요

### “법률가가 아닌 친근한 벗으로 재능기부 하고파”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6월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센터1번호사제' 실시를 주 내용으로 다문화가정의 전반적인 법률상담을 추진해왔다. 임준호 이사를 비롯해 11명으로 구성된 자문변호사들은 7월부터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이나 출입국 문제,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 상담을 해주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해 오고 있다. 대한변협 임준호 사업이사를 만나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그에 따른 전반적인 계획을 들어보았다.

### ■ 다문화가정과 탈북자 등 소외계층에 관심

2002년 3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 이사는 서울고등법원 판사, 춘천 지방법원 속속지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일찍이 탈북자와 다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 탈북자 천명과 저소득층을 서울 정동극장에 초대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정도로 열정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임 이사는 그동안 여건과 상황이 받쳐주지 못해 이들에게 적극지원 하지 못해 안타까웠는데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펄떡이라고 말했다.

### ■ 1센터 1멘토 재능기부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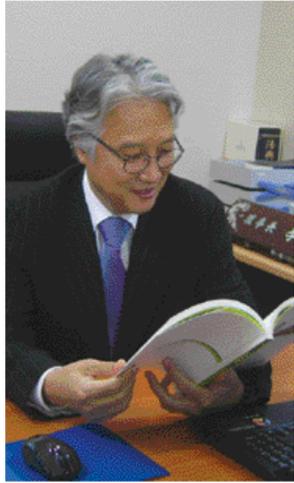
농촌총각 장가보내는 계기로 시작된 다문화가정은 정부도 국민도 아무런 준비 없이 이주여성들을 맞다보니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비일비재하다고 임 이사는 말했다.

다문화가정의 생활 실태라고 할 수 있는 '다누리콜센터'에 가면 이주여성들이 해결 하지 못하는 법률문제가 쌓여있다고 한다.

실제,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은 다른 가정보다 높고 최근 결혼이주여성도 적극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남편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한 결혼 중개업체의 무책임한 주선과 경제적인 동기로 국제결혼을 생각하는 이주여성의 사정이 이런 현상을 낳고 있다.

임 이사는 그에 따른 결혼중개업체의 개성,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 외국인 체류자격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문화가정지원법률위원회는 올해 주



요사업 중 하나, '다문화포털사이트'를 개설,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싶을 때 호출할 수 있는 신문고 역할을 톡톡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임 이사는 정부가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면 그에 따른 재능기부도 기꺼이 하겠다는 열정을 보이고 있다.

한글교육이나 육아교실, 생활지도는 적응기를 갖고 학습하면 되지만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고,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법률 자문은 다문화가정 이들에게는 어렵고 막막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내린 판단이라고 한다.

정부 산하 기관에 법률지원단을 구성하면 변형에서 재능기부 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산하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거절의 답이 돌아왔다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다문화포털사이트를 개설하자 자신 재능기부 하겠다는 변호사들은 약 300명, 전국에 다문화센터가 약 200개소,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지만 1센터 1멘토 원칙으로 한 달에 두 번 찾아가는 친근하고 편한 변호사로 지원하고자 노력중이라고 한다.

### ■ 방황제시가 시급한 과제

임 이사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이주민은 한국인이 될 준비를 충분히, 한국인은 이주민을 이해할 준비가 충분히, 정부는 대립과 충돌이 생기지 않게 적절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일 민족에서 다문화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 제시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멜팅 팻 (Melting Pot) 인종 문화 등 여러 요소가 하나로 융합 동화되는 현상, '인종의 용광로'라고도 하는 멜팅 팻의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다민족문화다.

미국처럼 멜팅 팻을 지향하느냐, 아니면 유럽처럼 색깔과 모양이 다른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이루는 모자이크 사회를 지향하느냐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제2의 노르웨이 사태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 ■ 온라인법률상담센터

www.rainbowlaw.or.kr은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 다문화 관련 종사자들이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싶을 때 언제든지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는 곳이다. 전국 약 100여명의 변호사가 각자의 전문 분야별로 상담하며, 소송이 필요한 경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의 법률구조로 연결해준다.

정명 기자 hantvcom@hanmail.net

## ‘반다문화정서’에 대한 이주여성의 단상

왕지연 이주여성연합회 회장



점점 늘어나는 외국인, 지금 한국 거주 외국인 수는 백만 명 시대를 맞았습니다. 국제결혼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제 다문화가정이라는 단어도 낯설지 않고 주변에서 다문화가정을 쉽게 볼 수 있으며 피부색이 다른 이웃에 대한 신기함이 없을 정도다.

이제 다문화가정으로서 외국인엄마로서 사는 것이 예전처럼 창피하거나 한국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피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이 너무 많아 일반 한국가정 보다 오히려 우월성이 있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보육료가 전면 무상지원 되면서 지원정책의 혜택을 확실하게 느꼈다. 주변에 일반 한국어머니들이 차라리 자기가정도 다문화가정이며 좋겠다며 부러워하기도 한다. 정말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 혜택이 한눈에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헛갈릴 때도 있다.

한국어교실, 요리교실, 방문교육, 자습감 교육, 고궁 관람, 가족나들이, 건강검진, 교육방문, 취업교육 및 상담 등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모두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인원모집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한다. 한국어교실 같은 경우는 각 자치구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복지관, 교회 등 기타 복지시설에서도 같은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시간과 강사에 따라 수강생 인원은 결정된다. 즉 주말시간 혹은 퇴근시간 후 교육하는 교육장소와 외국어를 좀 할 수 있는 강사가 있는 교육 장소에 수강생이 많이 몰리고 꾸준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어교실이 기초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비해 중, 고급과정은 많이 없다고 한다. 고급과정을 교육하는 교육장을 몇 군데 가봤는데 수강생 2~3명 밖에 안 되고 강사의 강의내용도 고급과정에 적합하지 않았다. 이유를 몇 가지 분석해 봤는데 다문화가정의 경제상황은 대부분 어려우면인데 남편들은

일용직이 많아서 이주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요구되기 때문에 한국어가 서툴러도 나가서 경제활동이 해야 하는 이주여성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이주여성들은 일당식으로 받고 4대보험이 되지 않는 직장에서 이주여성들끼리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작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이주여성들도 한국어를 배우지 않고 직장만 다니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 온 지 5년 이상의 이주여성들은 더욱 돈에 대한 중요성을 느껴 한국어 교육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어교실과 같은 교육지원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 지원 사업은 제한 조건이 많고 홍보도 많이 안 하는 것 같다. 무엇보다 지원 대상국이 제한되어 있어서 많은 이주여성들 이용을 못하고 있고 정말 도움이 필요해도 컴퓨터 사용을 못하거나 정보를 얻지 못해서 지원을 놓칠 때가 많다.

언어영재 교실도 2011년에 신규 사업으로 시작됐다. 특히 중국어 교육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한 자치구

에 강사가 한 명만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배우고 싶은 많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장소, 시간, 강사인력 부족 때문에 언어영재 교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더 많은 전문 강사를 양성하여 배치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취학자녀의 학업문제도 아주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8세까지 국가 지원사업 독서바우처를 이용해 한글 및 독서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입학하면 이런 지원서비스가 없어진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초, 중등학생에게도 독서바우처 같은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주여성들을 자립시키기 위한 취업교육 및 상담이며, 많은 취업교육을 여러 시설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정말 이 혜택을 받아 취업된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한다. 모두 지원금과 지원시간에 맞춰 일자리 제공하거나 취업교육을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이주여성들이 이에 대해 거부감이 생긴다고 하며, 교육만 계속해서 강사들만 돈을 챙길 뿐 교육생들은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한다고 한다.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나 다문화 관련 사업에 채용된 인원이 대부분

한국인인데 이주여성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무료지원혜택이 많은 것은 방송을 통해 전 국민들 다 알고 있다.

이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냥 지원금이 몇 십억이라고 발표하다 보니 일반 한국인들이 이에 대해 잘못 이해해서 다문화 정책 반대 카페가 생겨난 것 같다. 반대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저도가 입혔는데 카페의 많은 글들을 읽고 나서 그 사람들 왜 반대하는지 알았다. 결국 많은 분도 한국인들도 여유 있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부지원이 다 다문화가정에 쏟아질 거 같다는 생각이 일반 한국가정과 다문화가정 간의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생각이 든다.

한 50대 아주머니께서 울린 글을 읽어봤는데 점점 그분의 심정이 이해되고 정말 입장을 바꿔보면 저도 똑같이 느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 아주머니가 등 주민센터에 갔는데 게시판에서 모두 다문화가정,

외국인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이더라. 무료 결혼식, 무료 친정모내기, 무료 건강검진, 무료 가족여행 등등. 아주머니도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서 예태까지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벌써 60세가 다 되어 가는데 정부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이 많이 만들어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하지만 방송이나 매체에서는 오해를 줄일 수 있는 설명을 덧붙이면 좋겠다. 또한 앞으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을 만들 때 다문화가정들이 직접 참여하여 정말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여 국가 재산 낭비가 없으면 좋겠다.

이 자리를 빌어 다문화가정을 위해 정책을 만들어 주고 검토하느라 수고하는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더욱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정부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더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혜택을 받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

## 이주여성들과 함께하며 얻은 깨달음

### 이주명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시집 온 이주명입니다. 저는 지역공공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는 산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기를 돌보고 통·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베트남 친구들은 말도 잘 못하고, 의사소통이 힘들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센터에 전화하거나 찾아오면 제가 통역을 대신해 줍니다. 어떤 때는 남편이나 가족들과 싸우고 센터에 오기도 하는데, 통역으로 오해가 풀려서 화해하고 돌아갑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생긴 일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행사가 있을 때면 이주여성들 옆에서 통역을

해줍니다. 그럴 때마다 이주여성들은 내용을 알 아들을 수 있어 너무 좋으며 기뻐합니다.

한국말이 서투른 이주여성들을 위해 아기가 예 방주사 맛을 때 같이 가서 도와주었고, 산부인과 에 가서 통역도 해주었습니다. 단순히 통역만 하는 게 아니라 임신했을 때 주의할 점이나, 아기 키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

이밖에 저는 센터를 찾은 엄마들이 공부하는 동안 아기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 물론 저도 보람됩니다.

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면서 많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남을 위해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